

조선후기 풍속화에 나타난 여성의 생활상과 복식문화

양 숙 향 · 이 혜 경
순천대학교 패션디자인전공

Lifestyle and Costume Culture of Women As Shown in Genre Paintings of the Late Chosun Dynasty

Yang, Suk Hyang · Lee, Hye Kyeong
Dept. of Fashion Design, Suncheon National University, Suncheon, Korea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costume worn by women in daily life according to life scenes depicted in genre paintings of the late Chosun Dynasty. The sentiments and customs of the time were examined to discover how costume culture followed women's lifestyles in the late period of the Chosun Dynasty. First, according to life scenes, a field amusement type costume was the most common garment and a commercial activity type costume was the least common garment. Second, when the form of costume was examined followed by the lifestyle it depicted, the following observations were noted. Women depicted in a housework type lifestyle often wore a Minjeogori. In contrast, women appearing in a labor production type or a commercial activity type lifestyle often wore a Banhoijangjeogori with the width of the coat narrowing gradually according to the trends of the time. In the forms of Chima, the women wore a Duluchima and a Gudlchima for convenience during their work and covered a Haengjuchima over it. Third, women shown in a field amusement type, a home enjoyment type or an affection pursuit type lifestyle mainly wore a deep blue colored Chima and Hoijang or Banhoijang Jeogori. While most of the women depicted in a labor production type, a housework type or a commercial activity type lifestyle wore a natural cotton colored Jeogori and a natural cotton colored and light indigo Chima.

Fourth, in the field amusement type and the affection pursuit type lifestyle, the wearing of a headdress during outings of women appeared variously influenced by the strengthening restrictions placed on the women's lives according to the ethics of Confucianism.

Key words: genre painting, costume culture, lifestyle, gisaeng, jeogori, chima

I. 서론

우리나라 여성사를 살펴보면 삼국시대부터 고려 말, 조선 초에 이르기까지 여성들은 재산 상속, 제사상속, 이혼, 재혼 등 생활이 비교적 활발하고 자유로웠다.(변원린 1995) 그러나 조선후기에 들어와서 유교주의적 통치체제와 의례가 강화되고 여성들은 엄격한 유교윤리와 가치관의 지배 속에서 삼강오륜, 삼종지도, 칠거지악 등의 법과 함께 순종하는 유교적 여성관을 강요받게 되었다. 바깥출입이 엄격하게 제한되는 폐쇄적이며, 억압적인 생활과 함께 여성의 지위는 낮아지고 노동으로 힘든 생활을 살아가게 된 것이다(류재운·전혜숙 1998).

본 연구는 이처럼 유교의 이념 속에서 사회전면으로 부각되지 못하였던 여성들의 생활상을 시대적인 정서, 삶의 풍습 등이 자연스럽게 담겨져 있을 뿐만 아니라 여성들의 생활상과 복식문화가 사실적으로 그려져 있는 풍속화를 통해 생활 유형에 따라 당시 여성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착용하는 복식을 고찰하여 조선후기 여성들의 생활상과 복식문화를 이해하고자한다.

본 연구의 범위는 조선후기(1592-1894) 풍속화가의 작품들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작품의 선택 기준은 미술사에서 그림에 대한 자세한 해석과 함께 생활유형에 따른 여성들의 생활상이 분류된 선행 연구 문헌들을(신동훈 1996; 양숙향·김나형 2004; 이태호 1995; 이태호 2006; 이태호·양숙향 2000) 참고로 본 연구자가 복식의 착용상태가 잘 나타난 작품을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작품수는 Table 1, 2, 3, 4, 5, 6에 언급되어있는 바와 같이 유형별, 연대 내림 순으로 조선후기 풍속화가 윤두서, 조영석, 윤덕희, 윤용, 김희겸, 마군후, 신한평, 김홍도, 김득신, 신윤복, 유운홍 등의 작품 총 56점이며, 노동 생산형, 가사 생활형, 상업 활동형, 야외 행락형, 가내 여흥형, 애정 추구형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II. 시대적 배경

1. 조선후기 풍속화

임진 병자 양란을 치룬 조선후기는 유교체제

의 강화, 전통적인 신분체제의 와해, 농업 생산력과 수공업의 발전, 현실적, 물질적, 인본주의적인 실학이 전해지는 사회적 모순과 갈등이 심화된 불균형 상태의 시기였다. 조선 건국 이래 조선사회를 지탱해왔던 전통적 유교에서 비롯된 사대모화사상이 흐트러지면서 봉건적 신분제도가 더 이상 원칙을 고집하지 못하게 되었고 성리학적 가치규범에 대한 비판의 소리가 높아갔다. 종래의 공리공담(空理空談)이 주가 된 도학(道學)과 주자학(朱子學)의 관념적 세계에서 벗어나 실제적인 사물에서 진리를 찾아낸다는 실사구시지학(實事求是之學)의 실학사상은 문화예술계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사대부 계층의 문학과 예술이 우위를 차지하고 있던 이 시대에 상품화폐와 수공업의 발전에 따른 유통경제의 활성화로 경제적 부를 축적한 서민계층은 양반 문화의 모방과 신분적 갈등을 해소하고 다양한 교양을 획득하기 위한 방안으로 각종 시회(詩會)를 형성하고 서화(書畵)를 구입하였다. 이에 사회의 중간층인 중인·서리들을 중심으로 한 여향문학이 발달하였으며, 사회의 저부기층(底部基層)에서는 양반을 풍자하는 <양반전> 등 서민문학이 성장하였다. 또한 화단에서는 조선의 예술적 세계를 직시하고, 전통 회화로부터 과감히 탈피하고자 하는(안휘준 1993) 예술적 개성의 추구, 즉 장인(匠人)으로부터 예술가로 발돋움하는 단계를 마련하게 되어 조선의 현실에 대한 그들 나름의 인식과 평가를 그림에 투영하는 조선적인 화풍이 형성되었다(신동훈 1996).

공재 윤두서와 관아재 조영석 같은 문인화가에서 시작한 조선후기 풍속화는 초기에는 사실적이기는 하지만 인물화에서 풍속화로 전개되어 가는 과도기적 양상을 보여준다. 하지만 18세기 중·후반 19세기 초 풍속화는 중국의 상황을 묘사한 경지도 계열의 회화에서 벗어나 우리의 풍속과 풍물을 그렸으며, 산수배경을 생략하여 풍속화의 주제를 화면 중심에 부각시켰다. 이 시대 회화사에서 당대의 생활상을 구체적으로 읽을 수 있는 사실정신과 회화성이 조화를 이룬 영역으로써 조선 후기의 사회변동과 새로운 문예풍토 속에서 그 시대에서는 보기 드물었던 여인들이 그려지는

현상이 나타났다(이태호 1996). 이러한 조선 후기 풍속화는 백성의 삶을 객관적인 대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된 보다 나은 인간 삶의 가치를 찾으려는 노력의 결과물이다. 조선후기라는 시대적 배경과 관련하여 미술사적으로 풍속화가 시대적 증거로서 사회상을 읽게 해주는 기록이면서, 근대 사회를 지향하려는 인간주의를 뚜렷이 보여주고, 민중 삶을 비롯한 인간의 일상을 탁월한 예술성으로 구현해 내었던 것이다(이태호 1995).

2. 조선 후기 풍속화와 여성의 생활상

조선 후기 풍속화에 나타난 여성들의 생활상은 먼저 17세기 말에서 18세기 초 사대부화가 윤두서(1668-1715)가 조선이라는 폐쇄적 신분사회에서 여성을 주제로, 게다가 사회적으로 천시되고 주목받지 못하는 <채애도>와 같은 인물을 자신의 그림에 주인공으로 등장시켜 획기적인 변모를 시도했다. 그 뒤를 이어 사대부화가 조영석(1681-1761)이 실득(實得)보다는 주변에서 구체적인 대상을 선택하고 직접 실사(實辭)하여 풍속사 생첩인 《사제첩(鸚鵡帖)》에 <절구질>, <바느질>, <새참> 등을 남겼다. 이후 윤두서의 손자인 윤용(1708-1740)의 농촌 서정이 물씬 배어 있는 <협룡채춘>, 사대부가의 행사장면을 담은 김희겸(18세기)의 <석천한유도>, 신윤복의 아버지 신한평(1726-19세기 초)의 <젓먹이는 여인>, 마군후(18, 19세기)의 농촌 여숙을 담은 <촌녀채종>이 있다. 18세기 말에서 19세기 초 김홍도로부터 김득신·신윤복에 이르러서는 다른 시대 회화에서는 찾아보기 힘들었던 여성들의 생활상을 보다 생생하게 그림으로 나타내었다. 김홍도(1745-1810)의 대표적인 풍속도인 《풍속화첩》과 <행려풍속도병>에 나타난 농촌 여성의 현실 삶과 사회상, 민중 생활의 질박한 서정을 해학미 넘치게 표현한 김득신(1754-1822)의 <파적도>, 평범한 여숙을 김홍도 화풍으로 그린 신윤복(18세기 중엽-19세기 초반)의 <전모 쓴 여인>, <어물장수>, <다림질> 과 도시남녀의 애정행각이나 향락적 생활문화를 담고 있는 《혜원풍속도첩》, <연당의 여인> 등에서 여성들의 생활 장면이 묘사되고 있다. 가부장적 사회이념이나 민간 복식의 규제에도 불구하고 당대

여성들이 상당히 능동적인 삶을 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 밖에 19세기 중 후반에는 김홍도와 신윤복의 화풍을 계승하면서 소재를 새롭게 변용한 유운홍(1797-1859)의 <기방도> 등이 있다(이태호 1995). 이렇듯 조선 후기 풍속화에는 여성들의 문화, 사상, 생활, 미의식 등 여성들의 애환과 정서가 나타나있다. 이 시대 모든 여성생활사를 엮어 낼 만큼 포괄적이진 못하지만 삶의 형태와 복식문화를 읽는데 좋은 문화 사료라 할 것이다. 특히 이때에 유행했던 회화의 사실 정신은 조선 후기 사회의 여성에 대한 인식 변화와 여성들의 생활상을 소상히 살피게 해준다 하겠다(이태호 1996). 따라서 이와 같은 연구는 조선시대 여성들의 생활상과 복식문화에 대한 기초 자료를 제공함은 물론 이 시대 여성의 삶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III. 조선 후기 풍속화에 나타난 여성의 생활유형별 복식문화

1. 노동생산형

생계유지를 위해 여성이 중심이 되어 경제활동을 하는 유형으로 7점을 들 수 있다. Table 1에서 알 수 있듯이 썩이나 나물 캐기, 목화 따기, 김매기, 길쌈, 자리 짜기 등의 생산 활동에 참여했음을 알 수 있으며 아기를 등에 업고 노동하는 모습도 보인다. 여인들의 일상적인 삶에 대한 애착과 간절한 생활방식이 간접적으로 드러나 있으며 순종적이면서도 떳떳하고 활기 있는 모습 또한 느껴져 보는 이로 하여금 억척스러움과 함께 풋풋함을 느끼게 해준다.

<채애도>(Fig. 1)는 조선시대 여성의 노동을 담은 최초의 그림인 동시에 조선 후기 최초의 풍속화이다. 첫 풍속화에 여성이 예술표현의 대상이 된 것은 여성의 사회적 위상변화와 여성사에 대한 새로운 발견의 징표라 할 것이다(이태호 20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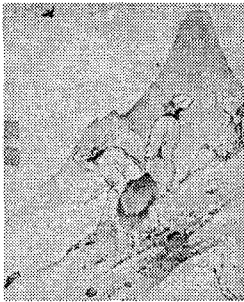


Fig 1. Chaeedo
(Jungangilbo, Beauty of Korea19,199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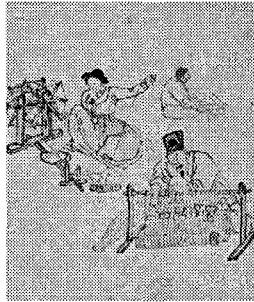


Fig 2. Zarizzagi
(Jungangilbo, Beauty of Korea19,1996)



Fig 3. Yeochonguiga
(National Museum of Korea, Danwon Kim Hong-do, 1992)



Fig 4. Carrying a baby
(Chong Pyong-Mo, Korean genre paintings, 2001)

Table 1의 분석표에서 알 수 있듯이 저고리색상은 대부분 소색을 띠고 있으나 <목화따기>와 <채애도>에서 삼회장저고리가 보인다. 삼회장저고리는 상고시대의 깃, 여밈, 수구, 도련 등에 들렸던 선(襟)이 조선시대로 내려오면서 깃, 고름, 끝동, 결마기 등 네 부위에 바탕색과 다른 색을 배색하는 저고리로 이색(異色)을 사용함으로써 의복의 형태를 부각시키고 바탕색과 강한 대비를 이루어 저고리를 한층 화려하게 만든 것이다. 당시 이러한 삼회장저고리는 반가부녀자의 전유물으로써 기녀와 서민부녀자에게는 착용이 금지되어 있었다. 따라서 삼회장저고리 차림의 여인은 반가부녀자일 것이며 그 외는 모두 서민여성들로 추정된다. 저고리 길이는 모두 허리 근처에 이르는 편이라 현대저고리와 비교하여 길고 품도 넓어서 일하기에 편리하도록 상당한 여유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자리짜기>(Fig. 2)에서 물레를 돌리고 있는 서민여성의 옷차림은 저고리 길이가 허리 위에 이르고 품도 대체로 다른 노동여성들이 착용한 것보다 몸에 꼭 맞는 복장을 이다. 수확한 목화솜을 이용하여 베를 짠 면포는 의복이나 물물교환 수단으로 모든 백성이 화폐로도 사용하였기 때문에 길쌈은 가계에 많은 도움을 주었다고 한다(김성희·이기영 1992; 김성희 2002). 깃은 목판깃과 당코깃이 혼용되어 주름 이루고 있으며 민저고리 또는 깃이나 고름에 다른 색으로 만들어진 반회장저고리가 대부분이다. 저고리 밑에는 대부분 소색이나 남색계통의 치마를 무릎

위로 걷어 올려 활동하기 편리하도록 거들치마를 착용하였다. 치마 자락을 앞 또는 뒤로 모아 허리춤에 끼워 넣는 방식으로 미의식의 표현이라기 보다는 실용성 때문으로 여겨진다. 김홍도의 <어촌귀가> (Fig. 3)에 두루치마의 착용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원래 이러한 치마는 조선후기에 나타난 천인의 또 다른 형태의 치마로써 양반층의 길고 풍성한 치마에 비해 종아리가 보일 정도로 짧고 폭이 좁아서 맵시가 없어 보이는 하지만 활동하기에 편리한 기능적인 치마 형태이다. 치마 밑에 입는 바지는 폭은 넓으나 부리가 좁으며 발목이나 종아리정도 길이로 착용하였으며 야외 활동의 편리성을 위해 종아리에 행전을 한 모습도 보인다. 또한 바지부리 부분에 직물을 덧대어 입음으로써 실용성뿐만 아니라 미적욕구를 나타내 고자 하였다(심화진·윤혜성 2000).

2. 가사생활형

조선시대는 남녀의 성역할이 확실히 구분되었던 시대로 여성들의 직업적인 활동은 드러나지 않지만 Table 2에 나타난 바와 같이 12점의 그림에서 바느질, 절구질, 젓먹이기, 물김기, 빨래하기, 점심 나르기, 정변야화, 애기 업기, 다림질 등 다양한 가사 생활 모습을 살필 수 있다.

Table 2의 분석표에서 알 수 있듯이 가정의 일상사를 나타낸 때문인지 신분상으로 모두 서민녀로 추측되지만 가정경제가 어려워 노비계층을 소유할 수 없었던 양반가에서는 양반여성이면서도

Table 2. Costume of housework-life type

Classification	Painter	Work name	Status	Hair style	Jeogori				Chima			Pants		Note
					Color	Length	Collar	Color scheme	Width	Color	Wearing form	Length	Cuffs	
Cho Young-Seok (1681-1761)	Eanijil	low class women	braided & coiled hair, braided hair	natural cotton	waist line	kalgit	minjeogori	normal	ligh-tblu	pullchima				
	Jeolgujil	low class women	braided & coiled hair, hair band	natural cotton	waist line		minjeogori	wide	blue	pullchima				straw shoes
	Jeotmeogigi	low class women	braided & coiled hair	natural cotton	under bust line	dangkogit	minjeogori	normal	light-blue	pullchima				
Kim Hong-Do (1745-1810)	Umulga	low class women	braided & coiled hair	natural cotton	under bust line	dangkogit	minjeogori	normal	blue, light-brown	gudchima	ankle line	decorative cuffs		straw shoes
	Ppalaeteo	low class women	braided & coiled hair	natural cotton	under bust line	dangkogit	minjeogori	normal	natural cotton, light-blue	gudchima	tuck up			
	Jeomsim	low class women	braided & coiled hair, head towel	natural cotton	under bust line		minjeogori	wide	light-blue	gudchima	tuck up			bare feet
	Pajeokdo	low class women	braided & coiled hair	light-brown	waist line	dangkogit	minjeogori	normal	light-blue	pullchima	ankle line	narrow		bare feet
Sin Yoon-Bok (early 18C -middle 19C)	Jeongbyunyawha	low class women	braided & coiled hair	natural cotton, yellow	above bust line	dangkogit	minjeogori	narrow	natural cotton, light-blue	gudchima	ankle line	narrow		apron
	Carrying a baby	low class women	gagye style	natural cotton	above bust line	dangkogit	minjeogori	very narrow	light-blue	pullchima				
	Darinjil	low class women	braided & coiled hair	natural cotton	bust line	dangkogit	minjeogori	narrow	light-blue	gudchima			narrow	
	Caeyungawha	low class women	gagye style	natural cotton	bust line	dangkogit	minjeogori	narrow	natural cotton, light-blue	gudchima	tuck up		narrow	
	Pyomobongyok	low class women	braided & coiled hair, cheoneui	natural cotton	bust line	dangkogit	minjeogori	narrow	natural cotton, light-blue	gudchima	tuck up		narrow	



Fig. 5. Jeongbyunyawha (Gansong Art Meseum, HaeWon's Pungsokhwachop)



Fig. 6. Haengsang (Jungangilbo, Beauty of Korea19,1996)



Fig. 7. Yeonsodapchung (Jungangilbo, Beauty of Korea19,1996)



Fig. 8. Hughgidappung (Gansong Art Meseum, HaeWon's Pungsokhwachop)

생을 영위하기 위해서 일을 하여야 했기 때문에 풍속화에서 보이는 복식만으로 양반임을 정확히 구별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애기 업은 여성>(Fig. 4)을 제외하곤 대부분 본인의 머리카락으로 틀어 올린 없은머리를 하고 있으며 들녘에 밥을 나르는 여성은 머릿수건을 쓰고 있다. 저고리 색상으로는 소색이 가장 많았으며 연갈색, 황색 등으로 나타났다. 저고리 길이는 허리선, 가슴아래, 가슴선, 가슴선위 순으로 시대가 내려올수록 길이가 짧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저고리의 배색에는 한 가지 색상으로 이루어지는 민저고리차림이 대다수이며 칼깃 모양이 보이기도 하나 그 밖에는 모두 당코깃이다. 품 역시 저고리 길이와 마찬가지로 현대에 가까워질수록 좁아지는 경향이지만 밥을 나르고 잠시 들녘에 앉아 애기에게 젖을 먹이는 여성은 상당히 여유로운 품의 저고리를 입고 있다. 비록 길이는 짧아졌지만 품은 넉넉하여 활동하기 편리하도록 하여 같은 가사생활을 하면서도 시대별로 복식이 점차 변해가는 것을 알 수 있다. 치마의 색상은 연남색이나 소색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실내에서는 치맛자락을 내려 입은 풀치마형태로, 야외에서는 거들치마형이다. 거들치마는 긴 장방형 천의 상부에 주름을 규칙적으로 잡은 자락을 끝어당겨 허리위로 올리고 띠를 매어서 고정하는데 이는 긴치마를 입고 가사작업을 하는 것이 불편하여 보행시 활동하기 좋도록 한 것이라 생각된다. <정변야화>(Fig. 5)에서는 부녀자들이 거들 치마위에 행주치마를 두르기도 하였는데 행주치마는 여자들이 일할 때 치

마의 더러움을 방지하고 옷차림을 간편하게 하기 위하여 치마 위에 덧입는 치마로 고구려 벽화에서도 착용하고 있는 모습이 보일 정도로 역사가 오래되었다. 조선시대에는 흡수성이 좋은 무명이나 옥양목 등으로 홀로 만들어 치마 위에 입었던 노동복의 일종이었다. 치마 밑으로 보이는 바지는 모두 발목길이며 부리가 좁고 일부는 부리에 덧단을 대어 장식하였으며 일의 종류에 따라 종아리까지 건어 올려 입고 있다.

3. 상업활동형

조선은 농업을 중시하고 상공업을 천시하는 정책을 썼지만 당시의 농민들은 자금자족할 수 없는 수공업제품이나 소금, 생선, 건어물 등은 상인을 통해 구입할 수밖에 없어 생활에 필요한 물건을 사고파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 Table 3에 나타난 바와 같이 생활유형 중 4점으로 가장 그림 수가 적으며 대체로 행상, 주막, 어물장수 등 생계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여성들의 모습을 볼 수 있다. Table 3에 의하면 신분은 모두 서민녀로 추정되며 김홍도 그림의 여성은 자기 머리카락으로 엮은 머리 형태를 하고 있으며 그 뒤를 이은 신윤복 그림 속의 여성들은 가채머리를 하고 있었다. 저고리는 소색과 연남색을 볼 수 있으나 소색이 대부분이다. 허리아래, 허리선, 가슴선 위 순으로 시대가 내려올수록 짧아지는 경향이며 모두 당코깃 모양이다. 민저고리가 보이거나 끝동, 깃, 고름에 각각 다른 색을 댄 반회장 또는 회장

Table 3. Costume of commercial activity type

Classification	Jeogori				Chima			Pants		Note			
	Work name	Status	Hair style	Color	Length	Collar	Color scheme	Width	Color		Wearing form	Length	Cuffs
Painter Kim Hong-Do (1745-1810)	Haengsang	low class women	braided & coiled hair	natural cotton	under waist line		minjeogori	wide	light-blue	gudichima	ankle line	haengjeon	straw shoes
	Jumak	low class women	braided & coiled hair	natural cotton	waist line	dangkogit	kkutdong	wide	light-blue	pullchima			
Sin Yoon-Bok (middle 18C-early 19C)	Yeomuljansu	low class women	gogye type	natural cotton	above bust line	dangkogit	git,goreum	very narrow	natural cotton, light-blue	gudichima	ankle line	narrow, decorative cuffs	straw shoes
	Jusageobae	low class women	gogye type	light-blue	bust line	dangkogit	git,goreum, kkutdong	narrow	blue	pullchima			

저고리이며 같은 종류의 일을 할지라도 김홍도 그림속의 여성들은 여유있는 품의 저고리를 입은 반면 신윤복 그림 속의 젊은 여성은 품이 좁은 저고리를 입고 있다. 반면 나이들어 보이는 여성의 저고리는 품이 적당하다. 이러한 차이는 비록 당시 짧은 저고리가 유행이었다 할지라도 연령에 따라, 형편에 따라 복식을 자기스타일에 맞게 착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한편 <행상>(Fig. 6)에서 아이를 저고리 속에 업고 있는 모습이다. 저고리의 길이도 허리선을 내려오며 품도 상당히 넓음을 알 수 있다. 아이를 업고서 노동을 해야만 하는 부인들의 특수한 복장으로 생각된다(양숙향·김용서 1998). 치마는 남색계열의 색상이 주를 이루고 있다. 또한 주막과 같이 실내에서 일할 때는 풀치마 형태이나 다리품을 파는 행상에서는 거들치마를 입고 있다. 바지는 모두 발목 길이며 부리 부분에 덧단을 대거나 종아리에 행전을 하고 있는데 흙먼지 날리는 길을 많이 걸어 다녀야만 하는데서 오는 실용성에 중점을 둔 것으로 보이며 모두 짙신을 신었다.

4. 야외행락형

조선사회는 철저한 남성 중심의 중앙집권적 양반 사회이다. 때문에 남자사대부를 제외하고는 양반여성들까지도 사회진출은 물론 공식적이거나 비공식적인 교육기관에서 교육 받을 기회조차 없었다. 밖으로의 외출도 자유롭지 못했으며 남에게 자신의 얼굴조차도 보이면 안되는 규범 속에 살았다. 또한 서민 여성들은 허리가 휠 정도의 노동에 시달렸다. 그렇지만 기녀는 위로는 왕족이나 고위 관리들, 아래로는 일반 백성에 이르는 광범위한 계층의 남성을 상대하는 직업여성이자 시(詩) 서(書) 화(畫)와 같은 교육이 허락된 조선시대 유일의 여성계층이었다. 때문에 야외행락형에서는 Table 4에서 알 수 있듯이 총 56점중 17점으로 가장 많으며 대부분 기녀들이다. 이러한 현상은 조선시대의 독특한 신분제도에서 오는 것으로 기녀에게만은 외출뿐 아니라 자유분방함이 허용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Table 4의 분석표에서 볼 수 있듯이 신분에 상관없이 모두 얇은 머리형태이며, 서민녀를 제외

하곤 대부분 가채머리를 하였다. 저고리 색상은 소색이 제일 많고 연두, 노랑, 분홍, 연황 진녹색 등 다양하다. 김희경, 김홍도, 김득신의 그림에서는 허리위에 이르는 길이에 적당한 품의 당코저고리형태이나 신윤복 작품에서는 보기에 불편한 짧고 좁아진 당코저고리를 착용하고 있다. 실학자 이덕무(조선후기)는 이러한 여성복의 실태를 “새 옷을 입으려면 옷소매에 팔을 넣기가 몹시 어려워 한 번 팔을 구부리기만 하면 술기가 터진다. 심하면 입고서 얼마 안되어 팔에 기운이 돌지 않고 팽팽하여 벗기가 어려워서 옷소매를 찢고서야 벗게되니 어찌 그리 요사스러운가”라고 꼬집고 있다. <연소담청> (Fig. 7) 등에서 당시의 유행을 잘 나타내 주고 있다. 한편 언급한 바와 같이 삼회장저고리는 반가녀가 착용함이 당시 규정에 맞으나 삼회장 차림의 기녀모습이 간혹 보인다. 이는 조선후기로 내려올수록 신분에 따른 복식의 규제가 점차 해이해졌음을 짐작할 수 있으며 비록 기녀라는 천인신분이지만 화려한 복장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치마는 남색 또는 연남색과 소색이 주를 이루며 그 밖에 옥색, 홍색, 연황색 등 다양한 색의 치마를 풀치마보다는 거들치마 형태로 입는 경우가 많다. 이는 저고리의 단소화 경향과 함께 허리말기가 위로 올라가게 되어 비례적으로 더욱 길고 넓어지게 된 것과 여성의 활동성과 향아리형의 복식미를 고려한 것으로 생각된다. 동시에 치마 속에 입은 속옷은 보온과 내의라는 본래의 기능보다 하체를 강조하는 기능으로 바뀌었는데 치마를 부풀리기 위하여 입었던 다리속곳, 속속곳과 바지, 단속곳의 겹침은 하체의 실루엣을 둥글고 더욱 풍성하게 보이도록 하는 효과를 냈다 그 밖에 신발류로는 대부분 짙신, 가죽신이다. 조선시대 여인은 낮에 뜰에 나가 놀지도 못한다는 남의 눈에 띄지 않아야 하는 내외법 때문에 부득이 이웃의 대소가에 가더라도 반드시 얼굴을 가리고 다녔다. 이러한 사회적인 입장에 반영하듯 다종다양한 쓰개류가 눈길을 끈다. 장옷은 원래 서민 부녀의 내외용으로만 착용이 허용되고, 사족부녀의 착용은 금하였으나 말기에 들어와 반상을 가리지 않고 통용된 것으로 보인다. 너울은 조선시대 상류층부녀자가 쓰던

Table 4. Costume of field-enjoyment type

Classification	Painter	Work name	Status	Hair style	Jeogori				Chima			Pants		Note											
					Color	Length	Collar	Color scheme	Width	Color	Wearing form	Length	Cuffs												
Kim Hee-Geom (18C)	Sukchonhanyu	gisaeng	gogye type	natural cotton, light green, yellow, pink	above waist line	dangkogit	gysopnagi, kkutdong, goreum, git	normal	red, blue, natural cotton	pulchima	ankle line	narrow	leather shoes, straw shoes												
														Jeomgyae	low class women	braided & coiled hair	natural cotton	above waist line	kkutdong	normal	light-blue	pulchima	ankle line	narrow, decorative cuffs	jangeui, straw shoes
Kim Duk-Sin (1754-1822)	Bansang	low class women	braided & coiled hair	natural cotton	above waist line	dangkogit	minjeogori	normal	natural cotton	gudchima	ankle line	haengjeon	satgat, straw shoes												
														Sin Yoon-Bok (middle 18C-early 19C)	Juyuchunggang	gisaeng	gogye type	natural cotton, light-blue & brown	bust line	dangkogit	git, goreum, kkutdong	narrow	light-blue, blue	gudchima	ankle line
Imhatulho	gisaeng	gogye type	light-blue	bust line	dangkogit	git, goreum, kkutdong	narrow	light-yellow	gudchima	ankle line	narrow														



Fig. 9. reading Women
(Chong Pyong-mo, Korean genre paintings, 2001)



Fig. 10. Gisaeng
(Jungangilbo, Beauty of Korea19, 1996)



Fig. 11. Ibutamchun
(Jungangilbo, Beauty of Korea 19, 1996)

내외용 쓰개중 대표적인 것으로 머리에서 아래로 어깨가 감추어질 정도로 내려쓰는 것이다. 쓰개 치마는 사족부녀의 장옷 착용이 문제가 되자 상류층에서 사용하던 너울대신 간편함을 좇아 만들어 쓴 것으로 치마형 쓰개였다. (유희경·김문자 1998). 천의는 서민층 여인들이 외출할 때 쓰던 쓰개의 하나로 장옷보다 길이가 짧고 소매가 없다. (김영숙 1998). 삿갓은 서민층의 부녀자들이 외출할 때 쓰는 부녀삿갓이다. 진모는 하류층의 쓰개로 상류층에서는 사용하지 않았다. 한편 <휴기담풍>(Fig. 8)에서는 장죽을 물고 가마에 오른 기생이 등장하는데 조선 중기 이후에는 고위관원의 첩들도 가마를 타고 다니는 일이 비밀비재하여 문제가 되기도 하였다. 신윤복의 작품 속에서 이러한 현상이 전국적으로 번져나갔음을 알 수 있다.

5. 가내여흥형

가내 여흥형은 9점이며 Table 5에 나타난 바와 같이 집안이나 기방 내에서 여성들이 여흥을 즐기는 유형으로 틈틈이 시·서·화를 익혀 자신의 세계를 넓혀가는 반가 여성과 기녀를 통해 갈수록 단순화 되는 복식의 유행을 살펴볼 수 있다. Table 5에서 알 수 있듯이 윤덕희의 <독서하는 여인>(Fig. 9)은 양반가의 여성으로 추측되며 소박한 얇은머리를 하고 품이 넓고 길이가 허리선까지 내려오는 반목판깃의 연녹색 삼희장저고리에 주름이 잘 잡힌 연갈색 치마를 착용하고 있다. 17세기부터 상류층에서 거의 모든 여성들이 한글

로 된 규중요람, 내훈, 삼강행실도 등 현모양처가 되기 위한 지침서를 읽을 수 있는 교육을 받게 되는 추세에 힘입어 나타난 여성의 모습이 아닐까 추측해 본다(이태호 2006). 그 밖의 여성들은 모두 기녀로 추정되며 땡기머리를 제외하곤 가채머리이다. 저고리의 색은 소색이 가장 많고 연분홍, 노랑, 연녹색으로 다양하며 길이는 가슴선과 가슴선위의 치마허리를 가릴 수 없을 정도로 짧고, 통이 좁아 어깨와 팔에 꼭 끼는 직 배래의 통소매이다. 고름은 저고리도련에 닿거나 치마허리에 닿을 정도의 길이로 좁고 짧은데 겹으로 보여지는 안고름과는 그 크기가 같다. 모두 당코깃 형태이며 시대가 내려올수록 점차 품이 좁아지다가 <기생>(Fig. 10)에서는 더욱 좁아진 삼희장저고리를 기녀가 착용하고 있다. 갈수록 더욱 문란해진 규제에 따라 기녀들의 삼희장저고리 착용이 빈번해짐을 알 수 있다. 치마색상 또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조선시대 대표적인 치마색인 남색계통이 주를 이루고 기타 연갈색, 홍색, 소색도 가끔 있다. 형태면에서는 풀치마보다는 무릎선 길이로 치맛자락을 걷어 올린 중형 모양의 거들치마의 착용형태가 많다. 한편 담뱃대를 물고 있는 여성을 종종 보게 되는데 담배피우는 계층이 남녀를 불문하였던 것으로 짐작된다.

6. 애정추구형

남녀의 직접적인 만남을 금지했던 조선시대 유교적 윤리관의 일종인 내외법은 본래 남녀관계에 관한 예절 법이었으나 이러한 사회적 배경은 남

Table 5. Costume of home-amusement type

Classification Painter	Jeogori				Chima			Pants		Note		
	Work name	Status	Hair style	Length	Collar	Color scheme	Width	Color	Wearing form		Length	Cuffs
Yoon Deok-Hee (1685-1776)	Reading women	high class women	up style	waist line	banmokpangit	git, kkutdong, goreum, gyeopmagi	normal	light brown	pullchima			
	Chongrusoil	gisaeng	gogye type	bust line	dangkogit	git, kkutdong	narrow	light-blue, blue	gudlichima	ankle line	narrow	leather shoes, jeonmo
	Hongludaeju	gisaeng	gogye type	bust line	dangkogit	git, goreum	narrow	blue	pullchima			
	Gibangmusa	gisaeng	braided hair	bust line	dangkogit	git,goreum, kkutdong	narrow	red	pullchima			virgin
Sin Yoon-Bok (middle 18C-early 19C)	Yugwakjwangwung	gisaeng	gogye type	bust line	dangkogit	git,kkutdong, goreum	narrow	blue	gudlichima	ankle line	narrow	pipe
	Yeondangwomen	gisaeng	gogye type	bust line	dangkogit	git	narrow	light-blue	gudlichima	ankle line	narrow	
	Tying Geomungo string	gisaeng	gogye type	above bust line	dangkogit	git,goreum, kkutdong	narrow	light-blue, light-green	gudlichima	ankle line	narrow	
	Two women	gisaeng	gogye type	bust line	dangkogit	git,goreum, kkutdong, gyeopmagi	narrow	blue	gudlichima	ankle line	narrow	leather shoes, pipe
Yoo Un-Hong (1797-1859)	Gisaeng	gisaeng	gogye type	natural cotton/light green	dangkogit	git, gyeopmagi, goreum, kkutdong	very narrow	natural cotton, light-blue	pullchima			

Table 6. Costume of affection-pursuit type

Classification	Jeogori						Chuma			Pants		Note	
	Work name	Status	Hair style	Color	Length	Collar	Color scheme	Width	Color	Wearing form	Length		Cuffs
Painter Sin Yoon-Bok (middle 18C-early 19C)	Wolhajeongin	gisaeng	gogye type	natural cotton			git, kkutdong	narrow	light-green	gudlchima	ankle line	narrow	leather shoes, sseugaechima
	Wolyamilhyi	gisaeng	gogye type	natural cotton	bust line	dangkogit	git, kkutdong, goreum	narrow	light-brown, blue	gudlchima	ankle line	narrow	leather shoes, jangeui
	Samchugayeon	high class women	braided hair	natural cotton	bust line		git, gyeopnagi	narrow	blue	gudlchima	ankle line	wide	
	Chunsaekmanwon	low class women	gogye type	yellow	bust line	dangkogit	goreum, kkutdong	narrow	blue	gudlchima	ankle line	narrow	apron, straw shoes
	Sonyeonjeonhong	low class women	gogye type	natural cotton	bust line		goreum	narrow	light-blue	gudlchima	ankle line	narrow	straw shoes
	Ibutamchun	high class women	gogye type	natural cotton	bust line	dangkogit	minjeogori	narrow	natural cotton	gudlchima	ankle line	wide	straw shoes
	Gidalim	low class women	gogye type	natural cotton	bust line	dangkogit	git, goreum	narrow	blue	gudlchima	ankle line		apron

녀에게 철저하게 불평등했다. 남성은 타인의 아내가 아니라면, 얼마든지 아내 외의 다른 여자와 관계 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정치 이외에도 여러 명의 첩을 둘 수 있었지만, 여성들의 성적 분방함은 절대적으로 용납되지 않았다. 여성에게만 정절을 강요하며, '칠거지악'으로 묶는 등 폐쇄적인 경향을 보이고 성을 금기의 대상으로 전락시키고, 그것을 유학의 이념으로 정당화했다.

풍속화에 등장한 애정추구형은 7점을 들 수 있으며 남녀간의 성회를 나타낸 것으로 대부분 중세 말기 변화하는 도회상과 노골적인 남녀의 애정표현을 자신의 예술세계로 끌어들이던 신윤복의 작품이다. Table 6에서 알 수 있듯이 성을 금기시한 사회적 배경과 달리 반가녀, 서민녀, 기녀들로 신분이 고르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땡기머리 반가 처녀를 제외하곤 가채머리이다. 야외행락형, 가내여흥형의 신윤복 작품에서와 같이 저고리는 가슴선에 이르는 짧고 좁은 당코깃 저고리형태이다. 색상은 대부분 소색이며 기녀, 서민녀 모두 반회장 혹은 회장 저고리를 착용하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론 과부는 소색을 입어야하는 당시 규율에 따라 반가녀이지만 소색 민저고리에 소색치마를 착용한 모습도 볼 수 있다. 남색계열이 주를 이루고 있는 치마는 연녹색, 연갈색이 보이기도 하며 모두 거들치마형이다. 갸신을 신고 행주치마를 두른 서민녀의 모습과 가족신에 장옷이나 쓰개치마를 두른 기녀의 모습이 대조적이다. 한편 <이부탐춘>(Fig. 11)의 소복 입은 여성을 통해 여성에게 사회활동을 금지시키고 엄격한 내외법에 의해 문밖출입을 금지하고 오직 집안에서 후덕과 일부종사(一夫從事)만을 강요한 당시의 사회를 짐작할 수 있다. 체면을 중시하는 사대부가문의 여인들에게 개가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어서. 비록 정혼만 하였더라도 그 배우자가 죽으면 여인은 평생을 공궁(空宮)로 늙어 수절하는 것이 양반가문의 엄한 법도였고 이들의 수절을 돕기 위해 청상의 머느리를 둔 집안에서는 후원 깊숙이 별당을 마련하여 외계의 유혹을 차단했다고 한다(이영화 1998). 그러나 조선후기 산업과 경제의 발전, 중하층의 성을 매개로 하는 자유로운 활동은 왕성한 경제활동을 벌여나가는 서민

과 중인 여성들의 변화 속에서 내외법이 더 이상 이들을 막을 수 없게 되었다.

IV. 맺음말

본 연구는 조선후기 여성들의 생활유형에 따른 복식문화를 고찰하고자 시대적인 정서, 삶의 풍습 등이 자연스럽게 담겨져 있는 풍속화에 묘사된 여성들의 일상생활에서 착용하는 복식을 고찰한 것으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풍속화에 나타난 여성들의 모습은 조선후기 초반에는 가벼운 노동활동이나 가사노동, 상공업에 해당되는 활동이 주를 이루었으나 점차 시간이 흐를수록 남녀의 애정문제, 기녀의 생활풍정까지 다양하게 나타났다. 생활유형은 야외행락형이 17점으로 가장 많았으며 가사생활형 12점, 가내여흥형 9점, 노동생산형 7점, 애정추구형 7점, 상업활동형이 4점으로 가장 적었다.

둘째, 신분상으로 가사생활형, 노동생산형, 상업활동형에는 일반부녀자의 모습이, 야외행락형, 가내여흥형은 기녀들이 많은 반면, 애정추구형에서는 일반부녀자가 기녀보다 많았다.

셋째, 생활유형에 따른 복식의 형태를 보면 가사생활형에 보이는 여성들은 민저고리를, 노동생산형과 상업활동형은 반회장저고리를 즐겨 입었으며 시대의 흐름에 따라 품도 점차 좁아졌다. 특히 노동생산형에 보이는 저고리는 풍속화에 나타난 것 중 품이 제일 여유로웠다. 치마형태는 일하기 편리하도록 대부분 두루치마와 거들치마였으며 그 위에 행주치마를 착용하였다. 머리에는 햇빛을 차단함과 동시에 머리카락이 흘러내리지 않도록 머리수건을 착용하였다. 야외행락형, 가내여흥형, 애정추구형에 보이는 여성들은 다양한 색상의 저고리와 치마를 착용하였다. 당코깃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몸에 달라붙는 정도의 품에 길이는 젓가슴이 드러날 정도의 짧은 저고리를 한껏 치장하여 입었다. 양반가 부녀자들만 착용할 수 있는 삼회장저고리를 착용한 모습이 보이며 풍속화에 나타난 복장형태 중 당시 유행하던 상박하후의 실루엣을 가장 뚜렷하게 형성하고 있었다.

넛재, 색상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저고리는 소색, 치마는 남색이 주를 이루고 있다. 야외행락형, 가내여흥형, 애정추구형 등은 남색계열의 치마와 회장 또는 반회장저고리를 주로 착용하였다. 노동생산형, 가사생활형, 상업활동형은 소색 저고리에 소색, 연남색의 치마를 입는 경우가 많았고 생활 유형에 따라 같은 형태의 저고리, 치마도 다양한 치수와 착장 법으로 그 시대의 유행을 따르면서 실용성과 자신들의 미의식을 찾고자 하였음을 볼 수 있다. 바지는 모든 생활유형에서 폭은 넓고 부리가 좁은 형태였으며 이 시대에 바지는 속바지의 의미보다는 치마와 함께 겉옷의 의미로 쓰이고 있는 듯했다.

다섯째, 야외행락형, 애정추구형에서는 유희윤리에 따라 여성생활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자 여인들의 외출용 쓰개류가 다양하게 나타났다. 내외법에 따라 맨얼굴로 외출 할 수 없는 이 시대 여인들의 복식문화를 엿볼 수 있다.

끝으로 조선 후기 풍속화가 여성의 생활상만을 전문적으로 묘사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시대 모든 여성생활상을 엿어냈다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앞으로 여성학, 미술사학 등 다른 학문과 연계하여 연구하면 한국복식사 및 역사속의 조선여성들에 대한 자료의 폭은 더 넓어지게 될 것으로 사료된다. 참고로 그림 전체를 본문에 제시하고 그것을 Table에 분석해 놓음이 마땅하나 지면 관계상 모든 사진을 다 제시할 수가 없어 그림 각각에 대한 것을 유형별, 시대 내림순으로 Table1, 2, 3, 4, 5, 6에 상세히 분석하여 놓았으며, 분류된 유형별로 특징이 잘 나타난 일부 사진만을 본문에 넣었음을 밝혀둔다.

참고문헌

- 김성희(2002) 한국여성의 가사노동과 경제활동의 역사. 서울: 학지사 66-67.
- 김성희·이기영(1992) 전통사회 여성의 가내노동의 특성과 경제적 가치. 서울대 생활과학 연구소 생활과학연구 제17권, 11.
- 김영숙(1998) 한국복식문화사전. 서울:미술문화. 354.
- 변원린(1995) 역사속의 한국여인. 서울: 일지사. 26-30.
- 류계운·전혜숙(1998) 조선후기 여자 저고리의 단소화와 상징적 의미. 복식35, 5-7.
- 신동훈(1996) 조선 후기 풍속화에 나타난 여성의 생활상에 대한 연구. 전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4-9.
- 심화진·윤혜성(1999) 조선후기 풍속화에 나타난 치마·저고리에 관한 연구. 복식50권 2호, 134.
- 안휘준(1993) 한국 회화사. 서울: 일지사. 211.
- 양숙향·김나형(2004) 조선후기 풍속화에 나타난 민간의 생활유형별 복식문화와 사회상. 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회지, 17-26.
- 양숙향·김용서(1998) 조선후기 여자일상복의 변천에 관한 연구. 복식39, 174.
- 유희경·김문자(1998) 한국복식문화사. 서울: 교문사. 260-263.
- 이덕무(조선후기) 靑莊館全書 卷三十 士小節 第六 婦儀一 服食.
- 이영화(1998) 조선시대 사람들. 서울:가람기획. 120-121.
- 이태호(1995) 풍속화(하나). 서울:대원사. 11-12, 102-118.
- 이태호(1996) 조선후기 회화의 사실정신. 서울: 학교재. 7.
- 이태호(2006) 조선후기 풍속화에 그려진 여숙과 여성의 미의식.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13, 45.
- 이태호·양숙향(2000) 간송미술관 소장 <혜원 풍속화첩>을 통해 본 19세기 민간의 복식과 생활상. 강좌미술사, 203-250.
- 정병모(2001) 한국의 풍속화. 서울: 한길아트. 339.
- 간송미술관(조선후기) 풍속화첩. 서울: 간송미술관. 4, 20.
- 국립중앙박물관(1992) 단원김홍도. 서울: 통천문화사. 11.
- 중앙일보(1996) 한국의 미. 서울: 중앙일보사. 64, 147, 153, 162.